

037/200

新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

1. 철학지문 특징

2. 서양사상 전반 흐름 정립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1 아리. 목적론 1~5	2017, 2018 이후 평가원 기출의 흐름 - 인류의 사상 흐름
2 아리. 목적론 반박. 근대. 1. 갈릴. 과학적 설명 no 2. 베이. 과학에 무의 3. 스피. 이해 왜곡 재반박	서양 철학 VS 자연과학 서로 논박 : 논.증.구조 1단락 주장 : 아리. 목적론 1~5
3 아리 목적론 반박 근대. 재반박 1. 볼로틴. 목적론 반박 경험적 근거 없음 2. 시도 없음 3. 우드. 일부 인정 - 갈릴 그러나 옳고 그름 판단 불가	2단락 반박 : 근대 철학 1.갈릴 2.베이 3. 스피
4 아리 vs 엠편 근대과학 : 실험-물질론-환원론	3단락 재반박 : 현대 1.2. 볼로. 3. 갈릴인정 옳고 그름 판단 불가
5 아리. 목적론 의의	4단락 아리 VS 엠편 : 물질론 - 환원론
	5단락 아리 목적론 의의

크게 어려울 것이 없는 지문이지만,

- ① 서양 사상의 흐름과
 - ② 주제 전개 과정에서 논증구조 파악
- 초점 두는 것이 상당한 효용을 가져옵니다.

관리의 잘못을 부각하고 싶으면 (가)-(다)로 이어질 것이고
관리를 보호하고 싶으면 (나)로 갈 것입니다.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목적 지향적인가? 자기 몸통보다 더 큰 나뭇가지나 잎사귀를 허둥대며 운반하는 개미들은 분명히 목적을 가진 듯이 보인다. 그런데 가을에 지는 낙엽이나 한밤중에 쏟아지는 우박도 목적을 가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1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나며, 2 목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본성에 따른 운동을 한다는 목적론을 제시한다. 그는 자연물이 단순히 목적을 갖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3 목적을 실현할 능력도 타고나며, 그 목적은 방해받지 않는 한 반드시 실현될 것이고, 그 본성적 목적의 실현은 운동 주체에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자신의 견해를 "자연은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요약한다.

Q-A구조

Q-A구조

반복으로 목적론,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 흐름 잡고

1~5가지 정보군집 잡습니다. 아마 독립문항 출제 가능성 있는 정보군집임이 보이실거예요!

근대에 접어들어 모든 사물이 생명력을 갖지 않는 일종의 기계라는 견해가 강조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많은 비판에 직면한다. 1 갈릴레오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2 베이컨은 목적에 대한 탐구가 과학에 무익하다고 평가하고, 3 스피노자는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왜곡한다고 비판한다. 이들의 비판은 목적론이 인간 이외의 자연물도 이성을 갖는 것으로 의인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비판과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을 생물과 무생물로, 생물을 식물·동물·인간으로 나누고, 인간만이 이성을 지닌다고 생각했다.

비판 : 아리 목적론

근거 : 기계론

- 1. 갈릴 - 과학적 설명
- 2. 베이컨 - 과학에 무익. 3. 스피 - 이해 왜곡

이들의 비판~ : 아리 목적론 비판

그러나~ : 재반박

결국!

아리-목적론을 옹호하는 논증구조로 흐름니다.

일부 현대 학자들은, 근대 사상가들이 당시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는 일종의 교조적 믿음에 의존했을 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거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이런 맥락에서 블로틴은 근대 과학이 1 자연에 목적이 없음을 보이지도 못했고 그렇게 하려는 2 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은 아니지만, 3 저론의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론이 거짓이라 할 수도 없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현대학자들의 재반박.

특이한 부분은, 논박 과정에서, 우드필드는 상대방의 반박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이 논증 반박에서 특이점 평가원도 주목할 수 밖에 없고, 역시 문제-정답선지로 추후 이어지니 확인 바랍니다.

17세기의 과학은 실험을 통해 과학적 설명의 참·거짓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고, 그런 경향은 생명체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이 물질로만 구성된다는 물질론으로 이어졌으며, 물질론 가운데 일부는 모든 생물학적 과정이 물리·화학 법칙으로 설명된다는 환원론으로 이어졌다. 이런 환원론은 살아 있는 생명체가 죽은 물질과 다르지 않음을 함축한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엠페도클레스의 견해를 반박했다. 이 반박은 자연물이 단순히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또한 그것의 본성이 단순히 물리·화학적으로 환원되지도 않는다는 주장을 내포한다.

지금까지 나온 논박을 다시 정리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엠페도클레스
목적론 : 모든 것은 목적	물질론 : 모든 것은 물질 환원론 : 모든 것 물리화학으로
서로 비판	
현대 과학	근대 과학 - 기계론
1. 블로틴 : 근대 과학이 충분한 입증 못함	1. 갈릴레오 : 과학적 설명 아님
2. 입증시도도 안 함	2. 베이컨 : 무익함
3. 우드필드 : 옳고 그름 입증 NO	3. 스피노자 : 왜곡
*과학적 설명 아님 인정	

마지막 단락은 의의 정리하며 마무리

첨단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생명체의 존재 원리와 이
유를 정확히 규명하는 과제는 아직 진행 중이다. 자연물의 구성
요소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탐구는 자연물이 존재하고 운동
하는 원리와 이유를 밝히려는 것이었고, 그의 목적론은 지금까
지 이어지는 그러한 탐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항상 주제 + 전개방식.

16.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단락 아리 - 목적론

2단락 근대 과학 - 반박 / 재반박

3단락 현대 - 아리 목적론 옹호 / 아리 비판에 대한 재반박

4단락 비교

5단락 요약 정리

- ① 대립되는 두 이론을 소개하고 각 이론의 장단점을 비교하
고 있다.

장단점 없습니다.

- ② 특정 이론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제시하여 절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절충 없습니다. 변증법이 아니라, 한 주장에 대한 옹호로 끝납니
다.

- ③ 특정 이론에 대한 다양한 비판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새
로운 이론을 도출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새로운 이론 없습니다

주제는 목적론!

- ④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들을 시대순으로 제시하여 그 이론
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목적론 옹호!

- ⑤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들을 검토하고 그 이론에 대한 해
석을 제시하여 의의를 밝히고 있다.

바로 정답!

17. 윗글에 나타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
절한 것은?

예상했던대로, 1단락 정보군집 독립문항입니다.

이러한 유형은 와리가리 발췌독 갑니다.

단, 여기서도, 단어 하나 하나 꼼꼼하게 보자면, 구조는 다 망가
지면서 2단락 뒷 부분의 재반박 부분을 발췌해야하지만,

그런 접근이 아닙니다.

주제, 정보가치 높은 내용 잡고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적용입니다.

- 1.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나며,
- 2. 외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본성에 따른 운동
- 3. 자연물이 단순히 목적을 갖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
적을 실현할 능력도 타고나며,
- 4. 그 목적은 방해받지 않는 한 반드시 실현될 것이고,
- 5. 그 본성적 목적의 실현은 운동 주체에 항상 바람직한 결
과를 가져온다고 믿는다.

지문 내용 바탕 연결

- ① 개미의 본성적 운동은 이성에 의한 것으로 설명된다.

확인 어렵습니다. 스킵

- ② 자연물의 목적 실현은 때로는 그 자연물에 해가 된다.

5번 내용과 대립. 아웃

- ③ 본성적 운동의 주체는 본성을 실현할 능력을 갖고 있다.

3 내용과 같습니다. 정답!

- ④ 낙엽의 운동은 본성적 목적 개념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1 내용 불일치 아웃

- ⑤ 자연물의 본성적 운동은 외적 원인에 의해 야기되기도 한다.

2 내용 불일치 아웃

주제. 정보군집도 보았으니 이제는 구조를 보는 흐름입니다.

논증구조

주장 + 근거

반박 + 근거 + 재반박 + 근거

구조에서

특이하게

재반박하는데 상대의 반박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죠?

18. 윗글에 나타난 목적론에 대한 논의를 적절하게 진술한 것은?

- ① 갈릴레이와 볼로틴은 목적론이 근대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라고 비판한다.
- ② 갈릴레이와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는 데 동의한다.

역시 특이한 전개방식에서 주의가 끌렸고 2번 정답 보였습니다.

- ③ 베이컨과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교조적 신념에 의존했다고 비판한다.
- ④ 스피노자와 볼로틴은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확장한다고 주장한다.
- ⑤ 스피노자와 우드필드는 목적론이 사물을 의인화하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출제의도 항상 연습했습니다.

지문 원리 - 보기 원리 와 같이

지문 정보 위계와 - 보기 정보 위계가 같다면

① 비교대조문항

지문 원리 - 보기 사례와 같이

지문 정보 위계 - 보기 정보 위계가

상 - 하로 이루어져있다면

② 지문 원리 적용 문항입니다.

1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생물학자 마이어는 생명체의 특징을 보여 주는 이론으로 창발론을 제시한다. 그는 생명체가 분자, 세포, 조직에서 개체, 개체군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점점 더 복잡한 체계를 구성하며, 세포 이상의 단계에서 각 체계의 고유 활동은

미리 정해진 목적을 수행한다고 생각한다. 창발론은 복잡성의 수준이 한 단계씩 오를 때마다 구성 요소에 관한 지식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특성들이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마이어는 여전히 생명체가 물질만으로 구성된다고 보지만, 물리·화학적 법칙으로 모두 설명되지 않는다고 본다.

	아리스토텔레스	엠펜도클레스	마이어
목적론	0	X	0
물질론	X	0	0
환원론	X	0	X

위와 같이 처리가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 잠시 설명 부연드리면 4단락 내용인데

17세기의 과학은 실험을 통해 과학적 설명의 참거짓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고, 그런 경향은 생명체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이 물질로만 구성된다는 물질론으로 이어졌으며, 물질론 가운데 일부는 모든 생물학적 과정이 물리·화학 법칙으로 설명된다는 환원론으로 이어졌다.

물질론 : 모든 것이 물질

환원론 : 모든 생물학적 과정이 물리화학 법칙으로 설명

이런 환원론은 살아 있는 생명체가 죽은 물질과 다르지 않음을 함축한다.

환원론의 의미 정립 후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엠펜도클레스의 견해를 반박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반박과

이 반박은 자연물이 단순히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또한 그것의 본성이 단순히 물리·화학적으로 환원되지도 않는다는 주장을 내포한다.

반박의 근거인데 사실상 같은 내용 반복이라

결국 내용의 정리는

아리스토텔레스 : 목적론

엠펜도클레스

물질론 : 모든 것이 물질

환원론 : 모든 생물학적 과정이 물리화학 법칙으로 설명

보기 내용은

생물학자 마이어는 생명체의 특징을 보여 주는 이론으로 창발론을 제시한다.

그는 생명체가 분자, 세포, 조직에서 개체, 개체군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점점 더 복잡한 체계를 구성하며, 세포 이상의 단계에서 각 체계의 고유 활동은 미리 정해진 목적을 수행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목적론 확인

창발론은 복잡성의 수준이 한 단계씩 오를 때마다 구성 요소에 관한 지식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특성들이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부연

마이어는 여전히 생명체가 물질만으로 구성된다고 보지만, 물리·화학적 법칙으로 모두 설명되지 않는다고 본다.

물질만 : 물질론

물리화학 법칙으로 설명 안 됨 : 환원론 x

결국?

	아리스토텔레스	엠펜도클레스	마이어
목적론	0	X	0
물질론	X	0	0
환원론	X	0	X

- ①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엠펜도클레스의 물질론적 견해가 적절하다고 보겠군.
- ②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자연물이 물질만으로 구성된다는 물질론에 동의하겠군.
- ③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생명체의 특성들은 구성 요소들에 관한 지식만으로 예측할 수 없다고 보겠군.

역시, 주제 목적론 의미 파악하면 바로 나오는 선지. 정답!

- ④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모든 자연물이 목적 지향적으로 운동한다고 보겠군.
- ⑤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모든 자연물의 본성에 대한 물리·화학적 환원을 인정하겠군.

여기까지

동양 사상의 흐름

서양 사상의 흐름을 보았고

그 흐름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지 볼 텐데

문제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는 부분에 주목해야합니다.

‘미개하다’

라는 개념은 물론 우리가 가치판단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철학적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대가 도래하고,

개화가 되지 않은 것을 ‘미개’하다 하였으며

그것을 ‘야만’적이라 부르며,

개조와, 정복의 대상으로, 그래서 서구 식민 약탈의 정당성 부여의 기반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구조주의’에 의해 그 나름의 가치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사고 방식 중 상당수는 여전히 비과학적입니다.

지구 평면설을 아직도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따라서 그 부분에서 올바른, 가치있는 사고를 하도록 돕는 것이 국어 과목의 역할입니다.

이제

그 흐름을 잡을차례입니다.

서구사상과 동양사상

특히 서구 사상이 동양에 전래되며 생긴 사상적 변화에 주목합니다.

2018학년도 수능

[16~19]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배경지식, 어휘력, 상상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목적 지향적인가? 자기 몸통보다 더 큰 나뭇가지나 잎사귀를 허둥대며 운반하는 개미들은 분명히 목적을 가진 듯이 보인다. 그런데 가을에 지는 낙엽이나 한밤중에 쏟아지는 우박도 목적을 가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나며, 외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본성에 따른 운동을 한다는 목적론을 제시한다. 그는 자연물이 단순히 목적을 갖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실현할 능력도 타고나며, 그 목적은 방해받지 않는 한 반드시 실현될 것이고, 그 본성적 목적의 실현은 운동 주체에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자신의 견해를 "자연은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요약한다.

근대에 접어들어 모든 사물이 생명력을 갖지 않는 일종의 기계라는 견해가 강조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많은 비판에 직면한다. 갈릴레오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베이컨은 목적에 대한 탐구가 과학에 무익하다고 평가하고, 스피노자는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왜곡한다고 비판한다. 이들의 비판은 목적론이 인간 이외의 자연물도 이성을 갖는 것으로 의인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비판과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을 생물과 무생물로, 생물을 식물·동물·인간으로 나누고, 인간만이 이성을 지닌다고 생각했다.

일부 현대 학자들은, 근대 사상가들이 당시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는 일종의 교조적 믿음에 의존했을 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거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로틴은 근대 과학이 자연에 목적이 없음을 보이지도 못했고 그렇게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은 아니지만, 목적론의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론이 거짓이라 할 수도 없다고 지적한다.

17세기의 과학은 실험을 통해 과학적 설명의 참·거짓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고, 그런 경향은 생명체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이 물질로만 구성된다는 물질론으로 이어졌으며, 물질론 가운데 일부는 모든 생물학적 과정이 물리·화학 법칙으로 설명된다는 환원론으로 이어졌다. 이런 환원론은 살아 있는 생명체가 죽은 물질과 다르지 않음을 함축한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엠페도클레스의 견해를 반박했다. 이 반박은 자연물이 단순히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또한 그것의 본성이 단순히 물리·화학적으로 환원되지도 않는다는 주장을 내포한다.

예시 이해

첨단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생명체의 존재 원리와 이유를 정확히 규명하는 과제는 아직 진행 중이다. 자연물의 구성 요소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탐구는 자연물이 존재하고 운동하는 원리와 이유를 밝히려는 것이었고, 그의 목적론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탐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주제+전개방식

16.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립되는 두 이론을 소개하고 각 이론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 ② 특정 이론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제시하여 절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③ 특정 이론에 대한 다양한 비판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고 있다.
- ④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들을 시대순으로 제시하여 그 이론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 ⑤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들을 검토하고 그 이론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여 의의를 밝히고 있다.

주제

17. 윗글에 나타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미의 본성적 운동은 이성에 의한 것으로 설명된다.
- ② 자연물의 목적 실현은 때로는 그 자연물에 해가 된다.
- ③ 본성적 운동의 주체는 본성을 실현할 능력을 갖고 있다.
- ④ 낙엽의 운동은 본성적 목적 개념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 ⑤ 자연물의 본성적 운동은 외적 원인에 의해 야기되기도 한다.

18. 윗글에 나타난 목적론에 대한 논의를 적절하게 진술한 것은?

- ① 갈릴레이와 볼로틴은 목적론이 근대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라고 비판한다.
- ② 갈릴레이와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는 데 동의한다. 특이한 전개방식
- ③ 베이컨과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교조적 신념에 의존했다고 비판한다.
- ④ 스피노자와 볼로틴은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확장한다고 주장한다.
- ⑤ 스피노자와 우드필드는 목적론이 사물을 의인화하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17번 단독문항

A 견해

A 비판

+ 재반박

표

1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생물학자 마이어는 생명체의 특징을 보여 주는 이론으로 창발론을 제시한다. 그는 생명체가 분자, 세포, 조직에서 개체, 개체군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점점 더 복잡한 체계를 구성하며, 세포 이상의 단계에서 각 체계의 고유 활동은 미리 정해진 목적을 수행한다고 생각한다. 창발론은 복잡성의 수준이 한 단계씩 오를 때마다 구성 요소에 관한 지식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특성들이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마이어는 여전히 생명체가 물질만으로 구성된다고 보지만, 물리·화학적 법칙으로 모두 설명되지 않는다고 본다.

- ①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엠페도클레스의 물질론적 견해가 적절하다고 보겠군.
- ②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자연물이 물질만으로 구성된다는 물질론에 동의하겠군.
- ③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생명체의 특성들은 구성 요소들에 관한 지식만으로 예측할 수 없다고 보겠군.
- ④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모든 자연물이 목적 지향적으로 운동한다고 보겠군.
- ⑤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모든 자연물의 본성에 대한 물리·화학적 환원을 인정하겠군.